

윤석찬의 '우리와 경제'



'헬 조선'의 뜻을 안다면

'헬 조선' '지옥불 반도' '동방 역병지대'. 40대 이상 된 이들에게 이러한 단어는 안חו와 다르지 않다. 도통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을 거다. 하나, 이들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쓴웃음을 지을지 모른다. 혹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들 단어는 '대한민국'을 지칭한다. 헬 조선은 헬(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이고 지옥불 반도는 지옥과도 같은 한반도 상황을, 동방 역병지대는 전염병과 같은 고통이 휩쓸고 있는 한국을 표현한다. 국가와 사회를 향한 2030세대의 분노와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것이 이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킨 것이다.

오죽하면 자신의 조국을 무간지옥이라 칭할까. 이제 3포세대란 말은 진부하기까지 하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연애·출산은 물론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5포를 지나 취업과 희망마저 접은 7포세대로 자신들을 부르고 있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산다. 삶을 지탱해 내는 에너지 중 상당 부분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 욕망의 실제가 세속적이나 초월

적이라는 상관없다. 한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삶의 에너지를 포기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일본은 반면교사다. 일본의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 한다. 사토리는 '탈관' 혹은 '득도'를 뜻한다. 마치 선승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세대가 해서 붙여진 말이다. 바로 오늘의 우리 청년들 모습이다. 미래가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모든 희망을 접는 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청춘과 우리의 젊음이 욕망을 거두는 이유는 같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자니 일상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청춘을 절망하게 하는 걸까? 한마디로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은 물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돈벌이'는 필수다. 한데 그 길이 막히고 있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0%에 불과하다. 평균에도 못 미친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은 70%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50% 이상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한다. 덕분에 청년층 거의가 고학력인 상황이다. 한데, 그에 어울리는 고급 일자리는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청년들의 취업을 주도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 직종은 전문성과 지속성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따라갈 수 없다. 고학력 청년들에 어울리는 일자리가 너무 귀하다. 변변한 일자리는 거의 씨가 말랐다. 청년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한국의 청춘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대부분 빚쟁이가 된다. 학자금 대출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새 목돈이 돼버린 부채를 갚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활짝 피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빈곤과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시들어 가고 있다.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개인 워크아웃 신청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감소하는 데 비해 29세 이하 연령대만 오히려 늘었다.

욕망의 포기는 경제행위의 단절을 수반한다. 청년층의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슬래야 쓸 돈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또 있다. 대다수 청년들이 실업자인 상태라면 국가의 복지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우리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담보한다. 젊은이들의 소득은 국가복지의 뼈대이자 기반이다. 당장 국민연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전 세대의 연금은 결국 현 청년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다. 청년이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 모두가 흔들린다.

청년에 대한 투자와 복지는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청년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국가는 결국 망한다. 노동계약을 개혁, 혹은 청년 정책이라 우기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청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욕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기성세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김성원 광주 중흥교회 목사

으로 살아온 사람과 별로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 중에는 모든 이들에게 큰 안타까움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은연중 일찍 가버려 시원하다고 얘기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제법 많은 것을 이룬 듯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별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삶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고 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갔음이 확실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실에 대해 별로 확실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일이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첫째,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았던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 기왕에 목사가 된 바에야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였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간 하면 사람들이, “김목사님이 계셨더라면... 김목사님이 지금 우리에 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살아 돌아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세상을 떠났

음에도 아쉬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함께 울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더더군다나 ‘진짜 떠났어야 할 사람이 이제야라 고 말해진다... 그 비참함이란...

셋째, 내 부모님께,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형, 좋은 오라버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화에 매달려 있다 보니 가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다. 항상 아쉽다. 그러나 수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생각해 본다. 죽을 후에 모든 걸 아쉬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직 지금만이 나의 시간인 것을...

바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대해 바쁘고 무엇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꼭 기억하라. 오직 지금만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이웃,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는...

기고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 보존을



오정희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

해서 키니네를 적극 사용했지만 조선인의 병 치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2000 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인가.

당시 코이트 선교사의 2살, 4살짜리 남매도 하루 간격으로 목숨을 잃어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나란히 묻혔다.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조선에 온 외국인 선교사 가족들이 67명이 나 목숨을 잃게 되자 본국에서는 송환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이들은 귀국하지 않고 병원군이 퍼지지 않은, 고지대인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을 짓고 머물렀다. 선교사들은 단지 운둔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문으로 번역돼 있는 성경을 평민들을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우리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뜻깊은 일을 했다.

그들은 또 전국에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선교사들은 이화여대, 대전한남대, 연세대, 배제대, 마산 창신대 등을 비롯한 전주, 광주, 부산, 순천 등 전국 곳곳에 수많은 학교를 세워 문맹퇴치에 주력했다. 세브란스병원, 대구동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수많은 병원도 세웠다. 이런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문명을 누리며 편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기쁨이 깊어 기억해야 하지않을까.

이런 공적을 들어 이만열 박사(전 국사편찬위원장)는 “지리산 수양관이 비단 기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유산임”을

지난 2011년 7월12일 프레스센터 국제홀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이 1921년 지리산 노고단에 세운 50여 동의 수양관은 곡절을 겪었다.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지리산수양관을 빨치산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괴했기 때문에 현재는 훼손된 건물잔해와 일부 골조만 남아있다. 건물들은 아픈 현대사를 증언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노고단 수양관이 파손되자 1962년 왕시루봉 1240m 고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탄생한 왕시루봉 수양관은 조선의 해방과 민족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문화·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적이다. 선교사들로서는 열악했던 삶의 현장이지만 건축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공간으로 남았다. 선교사들이 오랜 타국 생활에서 오는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 각국의 정서를 담은 건축양식으로 집을 지은 덕분에 노르웨이,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식 등 특이한 집들이 1240m 산꼭대기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5일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주최로 구례에서 열린 지리산 유적지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적 이 있다.

그런데 그 시절 선교사들이 전기시설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산꼭대기에서 열악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도 이들의 머물렀던 공간이 화려한 별장 개념으로 소개돼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왕시루봉 유적지에 대해 문화재로서 가치는 인정하나, 보존에 따른 자연, 생태 등 상충 되는 부분을 놓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 반달곰 서식지와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세워진 건물과 터전이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작가의 말이 생생하다. “격동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건축물이 얼마 되지않는 한국에서는 건축이 아름답고 가치 있어 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았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그 건축은 운명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시대를 증언한다.” 그렇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문화·인류학적인 삶의 현장을 잘 보존하는 한편, 개화기 근대사의 소중한 장소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소외계층 위한 복지사업 중단하란 말인가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서는 바람에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반면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많은 광주·전남 지역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복지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뒤 대대적인 정비 방침에 따라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소외 계층 주요 복지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원 사업 가운데 주요 정비 대상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장수수당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장애인활동 추가지원 등이다. 이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고 취약·소외 계층이 많은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업'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복지사업 정비 대상은 총 158건이다.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25만 3455명에 이를 정도다. 장수수당(전남 13개 시군)과 조손가정 지원(전남 3개 시군), 노인 일자리(전남 6개 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광주·전남 14개 시군), 장애인활동 추가 지원(광주·전남 전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의 방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데다, 복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이다. 정비 작업이 표면상 '권고' 형식이긴 하지만, 불응 시 지원금 삭감이라는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실태를 다시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양림동 '역사 문화 마을'이 통(通)하려면

광주시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림동은 '역사 문화 마을'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100여 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곳이자 이장우·최승호 가옥 등의 건축들이 보존된 근대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역사문화마을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일대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는 역사문화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양림동 프로젝트'는 주차장 건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마을의 고유한 정취를 살리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부족한 편이어서 일부 행사의 경우 기획자들의 사업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게다가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들은 행

사기간이 아니면 개방하지 않는 이장우·최승호 가옥을 밖에서만 바라본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햇살'이 비칠 것 같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이장우·최승호 가옥 등 근대 유적들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개최되는 '근대 역사 건축물 100년 만에 문을 열다' 행사 기간 동안 선교유적과 이장우·최승호 가옥 등 7곳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상시 개방을 위해 소유자들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주시의 계획은 관광객들을 양림동으로 끌어들이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은 양림동 프로젝트의 성공 키워드다. 더불어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심과 양림동을 잇는 다양한 연계 전략도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얼마 전 어느 책에서 재미난 사진을 발견했다. 깎아지른 듯 위험천만인 절벽 위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그 남자가 절벽 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높은 곳에서 다리미판을 차려 놓고 '다리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사진도 보인다. 세 명의 남자가 물계몽계 피어오르는 구름 사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역시 '다리질'을 한다. 바닷속에서 물안경을 쓰고 '다리질'을 하는 사진도 있다.

이 모두가 절벽 위나 바닷속 등에서 다리미판을 펼쳐고 옷을 다리는데는 이색 스포츠 '익스트림 아이어닝'(Extreme ironing) 대회 장면은 찍은 사진이었다.

대회는 한 영국인 청년 덕에 생겨났다. 1997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청년 필립 쇼는 산등머리에 쌓인 옷을 다리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파분하기 그지없었던 그는 다리질용 바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해 친구를 꼬드겨 압벽등반에 나섰고, 산 정상에서 다리질용을 했다. 재미를 느낀 두 사람은 동호인을 모집했고, 지금은 세계 선수권대회까지 열릴 정도가 됐다.

세상에는 별의별 대회가 다 있다. '지렁이 꼬시기 대회'는 땅 속에서 지렁이를

표면으로 불러내는 대회다. 영국의 한 소년은 30분 만에 511마리를 유육(?)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9~10cm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대회도 있다.(상품은 1만 유로 상당의 상품권)

중국에서 열린 'BMW 오래 만지기' 대회는 말 그대로 자동차 BMW를 누가 가장 오래 만지는가를 겨루는 대회다. 참가자에게는 4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최근 우승자의 기록은 87시간. 물론 상품은 BMW다.

지난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화제를 모았던 대회가 있었다. '제 1회 멧 때리기 대회'였다. '지친 현대인의 뇌에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낮을 놓고 있는가'를 겨뤘고, 우승자는 아홉 살 초등학교 여학생이었다. 멧 때리기 대회는 올해 중국으로 진출해 최근 베이징 최대 쇼핑용 광장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 주는 이색 대회는牌坊한 세상의 유희유 같다. 우울하고 파란불 땀 '익스트림 아이어닝' 동영상은 본다. 효과는 즉각 나타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